

불편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해련 개인전 《Summer Cheer》 리뷰

김명진

장마철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기계를 뽑는다면 아마 가습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해련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눅눅한 장마철은 가습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응원을 시작한 것이다. 전시장 풍경은 작가의 응원을 받아 변형된 멋진 가습기들과 그들이 뿜어내는 하얀 증기로 가득 찼다. 습도가 더욱 높아진 여름의 전시장은 블랙코미디처럼 재치 있으면서도 불편한 공간이 되었다.

희뿌연 전시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습기의 다양한 형태들은 습기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제조사들과 작가의 노력을 짐작하게 했다. 예를 들어 <Cheer for EM-H1200>은 대용량 4방향 가습기를 작가가 12방향으로 변형한 것이다. 공간을 널리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4방향 노즐에 각각 3D프린팅으로 제작한 3방향씩이 더해진 가습기는 능름한 사슴뿔 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다른 작업 <굴뚝 Smokestack>에서 굴뚝형 가습기 모델들은 높은 곳으로 증기를 뿜어내는 공장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신개념 굴뚝형 가습기' 디자인은 높게 올라간 만큼 넓게 퍼지는 가습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¹⁾ 작가는 이 전략에서 힌트라도 얻은 듯, 그 옆에 가습기를 가장 높은 곳에 두기 위한 철제 구조물 <Cheer for AR-05>를 제작하기도 했다. 가습기 하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싸고 멋진 이 구조물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가습기 모델들을 수집하고, 기능을 보완하고 극대화시키는 보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작가는 최선을 다해 이들의 습기 전파를 응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계응원 프로젝트는 작가의 이전 작업 '기계농락 프로젝트'(2018)와 맞닿아 있다. 기계농락 프로젝트는 응원과 반대로 기계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헛수고나 '목적 없는 노동'을 하게 만든 일련의 작업들이다. 한 예로 <MR-6500 농락체>는 좁은 별 모양의 틀 속에서 연신 방향전환을 하며 미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 청소기의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번 가습기 응원의 경우보다 단순명료해 보인다. 모든 행위가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적 태도로부터 의도적으로 도태되는 것, 즉 주어진 시스템을 배반하는 것이다.

기계농락 프로젝트는 기계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에서 오는 '해방' 또는 능력의 '억압'이라는 상반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전자에 가까웠던 작가의 의도와 달리 몇몇 관객들은 '로봇청소기가 불쌍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이후 작가는 기계를 농락하기보다 응원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려 보았다고 한다. 가습기 응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성에서 '극생산성'으로 변화한 방향성의 실험 결과인 것이다.

농락에서 응원으로 실천 방식은 바뀌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에 저항하는 작가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기계농락을 통해 보여준 '기능에서 도태되기'와 기계응원의 전략인 '기능을 아무도 바라지 않을 만큼 극대화하기'는 양 극단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배반한다. 두 프로젝트의 연결성은 교집합이 되는 작업 <Go! Fight! Win!>을 통해서도 엿볼 수

1) ㈜에버홈 굴뚝가습기 EV-HU6000 판매 상세페이지 참조

있는데²⁾, 기계농락 프로젝트에서부터 작가는 목적 없는 노동을 응원하며 이번 작업의 전조를 보였던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가습기 응원의 목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가습기의 기능이 그 편의가 불필요한 시기에 극대화되는 모습은 마치 기계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습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세상에서 이들은 효율을 거부하고 마음껏 불편을 제공하며 움직였다.

기계농락과 기계응원 프로젝트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가습기 응원 행위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작가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 내에서 가습기를 응원할 수 있었다면 마치 한스 하케의 <응결 큐브>(Condensation Cube, 1963-65)가 확장된 것 같은 장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큐브 안을 넘어 주변의 공기와 순환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해, 공공공간의 기능과 가습기의 극대화된 기능이 충돌하게 되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실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가습기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과정은 갈등을 수반했다.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공간에서 한쪽의 카페에서는 편의를, 다른 한쪽의 전시장에서는 불편을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더군다나 전시장 천장에는 제습기능을 탑재한 에어컨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가습기의 세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인 에어컨은 공간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가동될 수도 있었다. 공간 관리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가습기 응원은 제도에 저항할 것인가 혹은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

가습기의 세상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노동 없이 전시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주기적으로 가습기 물을 채워주거나 바닥의 물기를 걸레질하는 것은 물론 주변과의 갈등 상황을 제어하는 것까지, 불쾌하고도 멋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기계농락 프로젝트에서 로봇청소기의 목적 없는 노동을 불쌍하게 느꼈던 관객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계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작가의 고생스러운 노동에 주목했다.³⁾ 시스템을 벗어나는 노동을 통해 해방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작가의 작업은 결국 해방을 위한 움직임에 수반되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여러 면에서 이해련의 작업은 불편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라 부를 수 있다. 작가가 연출한 공간에서 관객은 물리적, 정서적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불합리가 수정되지 않는 낯선 상황은 갈등을 불러온다. 편리함 추구로 점철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편함이란 어딘가 잘못된 것, 즉시 메워져야 할 구멍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불편이 제거된 사회는 제도비판의 가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당연해진 일상을 뒤집어 무더진 의식을 날카롭게 긁어내는 힘을 발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극단적 불편의 상황이 사회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가 선고되었고, 일상이 위협받으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스템의 재고가 요구된다. 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어쩌면 때 아닌 가습기의 세상은 그 예행연습 중 하나였을까.

2) 같은 제목의 두 작업은 기계농락 프로젝트에서는 치어리딩폼에 서보모터를 달아 움직임을 반복하는 '응원 기계'로 나타났으며, 기계응원 프로젝트에서는 공간의 습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젖은 수건으로 만들어졌다.

3) 작가의 말에 따르면 여러 관객들에게 '이 응원을 하느라 결국 네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나는 보고 떠나지만 너는 계속 여기에 있으니 고생이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